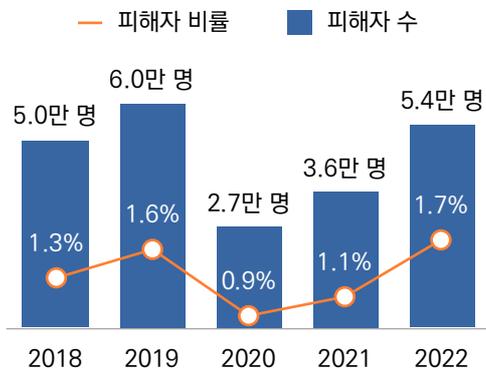




학교 폭력 피해자 수, 2022년 5만 4천 명으로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!

- ▶ 넷플릭스에서 '더글로리'라는 드라마가 반영되면서 우리나라 사이에 학교 폭력 문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. 이와 관련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'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' 결과에 따르면, 초4~고3 학생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 수는 2022년 5만 4천 명이며, 비율로는 전체 응답 학생의 1.7% 수준이었다. 학교 폭력 피해자 비율이 2020년 0.9%로 줄었다가 2022년 1.7%로 반등, 다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.
- ▶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자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중학교의 4배 이상, 고등학교와는 무려 12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.

[그림]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 및 피해자 수



[그림] 학교급별 피해자 비율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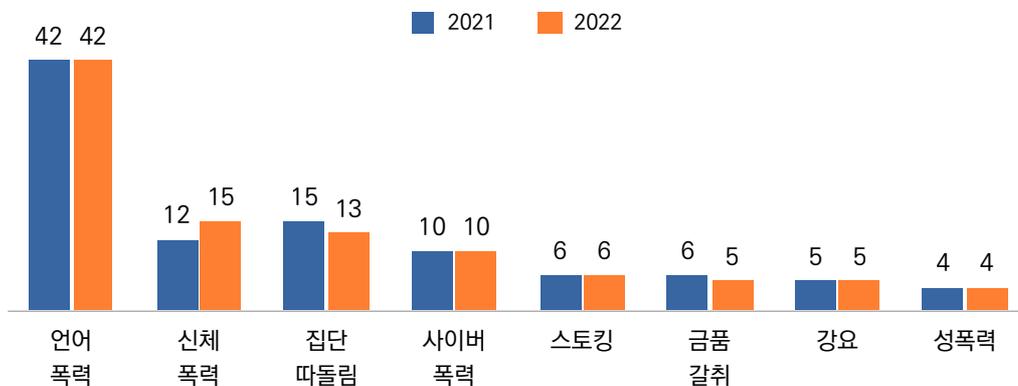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교육부,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, 2022.09.06. (초4~고3 재학생 전체 약 321만 명,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, 2022.04.11.~05.08)

◎ 학교 폭력 중, 신체적 폭력 증가 추세

- ▶ 실제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보면 '언어 폭력' 응답 비율이 42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신체 폭력' 15%, '집단 따돌림' 13% 등의 순이었다.
- ▶ 2021년 조사 대비 '집단 따돌림'(2021년 15%→ 2022년 13%)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'신체 폭력'(2021년 12%→ 2022년 15%)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학교 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 (%)



*자료 출처 : 교육부,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, 2022.09.06. (초4~고3 재학생 전체 약 321만 명, 온라인 및 모바일 조사, 2022.04.11.~05.08)